

# 중국 국가개혁 담론의 방향과 특징

- 2018년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 선정을 중심으로

김정수\*

<目 次>

1. 2018년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의 선정
2. 사회주의 시기 '모범노동자' - '육체노동'과 '헌신'
3. 2005년, '모범노동자' 시장 모델로의 전환:  
농구스타 야오밍의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을 둘러싼 논쟁
4. '모범노동자'에서 '개혁 선봉'으로
5. 다시 제기되는 문제

## 1. 2018년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의 선정

2018년 중국 관방의 화두는 단연 '개혁개방 40주년'이었다. 1년 내내 '개혁개방 40년'이 온 매체의 주요 화두가 되어 눈길 닿는 곳마다 '개혁개방 40년(改革開放四十年)'이란 일곱 글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을 경제 건설로 이전하고 개혁개방을 실행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천명한 11기 3중전회가 열린 날인 12월 18일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는 인민대회당에서 국가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CC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이 기념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코너는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이하 '개혁선봉 100인'으로 약칭)'에 대한 표창식이었다. '개혁개방 추진에 있어 결출한 공헌과 탁월한 모범의 역할'을 한 '인민 군중의 우수 대표'<sup>1)</sup> 100인을 선정해 그에 걸맞는 '칭호'와 '표창'을 수여한 것이다.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교수

BAT의 창업자 마윈(馬雲), 리엔홍(李彥宏), 마화텅(馬化騰)을 필두로 류융하오(劉永好), 허상젠(何享健) 등 중국 재계의 스타 기업가, 투유유(屠呦呦), 난런둥(南仁東), 징하이핑(景海鵬) 등 세계적인 과학자 등이 '개혁선봉 100인'으로 호명됐으며, 인민대회당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표창을 받아드는 세계적 스타들의 모습은 진정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의 화룡점정이었다.

중국 내의 떠들썩한 축하 분위기와는 별도로 우리는 이 '개혁개방 40년'이 가지는 무게에 대해 온당하면서도 비판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초기 다룬 사회주의권 국가들처럼 중국 역시 망할 것이라던 '중국 필망론', 2000년 전후 경쟁적으로 등장한 '중국 위협론'과 '중국 낙관론', 2010년 전후 중국의 G2 굴기 및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심리적 저항 등을 모두 뚫고 지나온 40년 세월의 경험은 간단치가 않다. 바깥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안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축적됐든 40년 동안 '개혁개방'의 노선은 흔들림 없이 견지됐고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내었다. 이제야말로 후쿠야마 식의 '역사종결론'이나 혹은 성급한 '중국 위협론'이나 '중국 낙관론'이 아닌,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포괄적 시야가 필요한 때이다.

2018년은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시점이자 향후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선포했다. 시진핑이 특별히 강조한 '신시대'란 무엇일까. '신 중국', '신시기' 등 적어도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 구분에 있어서 '신'은 중국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신시대' 역시 중국 사회에 발생할 어떤 근본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일까. 현 국무원 부총리이자 미중 무역 담판에서 시진핑의 특사를 맡고 있는 류허(劉鶴)는 2018년 1월 24일 다보스 포럼 폐막 연설에서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거시 경제 정책이 '하나의 총체적 요구', 즉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의 단계에서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둘러싸고 설계되었

1) 中央慶祝改革開放40週年表彰工作領導小組辦公室編, 『改革先鋒風采錄』, 黨建讀物出版社, 2019年, 2쪽.

고, 이 총체적 요구 아래 ‘공급측 구조개혁’이라는 ‘하나의 주 노선’과 ‘(금융) 리스크 해결, 빈곤 탈출, 오염 퇴치’의 ‘3대 공격전’의 개혁을 실시<sup>2)</sup>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허의 발언에서 ‘신시대’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의 단계에서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되었다는 판단이다. 개혁의 성패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시진핑이 강조한 ‘신시대’는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높은 질적 발전의 단계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일 것이다.

류허는 이어 ‘과거 40년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기뻐던 것은 개혁개방이며, 미래 양질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기대야 하는 것 역시 개혁개방’이라며, 향후 ‘개혁개방을 가속화’ 할 것을 천명했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40년 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여러 문제들, 금융 리스크의 심화, 양극화, 환경오염 등을 다시 한 번 개혁개방에 기대어 해결할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 새로운 개혁개방의 국가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금으로선 전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대외개방’, ‘개방형 세계경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개방의 가속화’라는 국가 전략은 분명 추세를 거스르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선정된 ‘개혁선봉 100인’은 향후 중국 개혁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개혁개방 40주년’에 맞춰 선정된 ‘개혁선봉 100인’은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에 대한 공헌뿐만 아니라, 미래 질적 발전의 비전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로 보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이 ‘개혁선봉 100인’을 ‘모델’로 삼아 이들이 각 분야에서 체현, 선도하는 가치와 비전을 읽어내고, 이들 전체를 통해 향후 중국의 총체적인 미래 비전을 그려보려 한다. 본 논문이 상정하는 ‘모델’은 모범 혹은 전범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라,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를 체현하고 있는 사람 혹은 상징물’<sup>3)</sup>을 뜻하는 분석적 개념이다. 이런 ‘모델’은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를

2) 류허, “높은 질적 발전을 추동해 전지구적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공동으로 촉진시키자”, 2018년 다보스 포럼 연설, 2018.1.24. (한국어 번역은 <http://hub.zum.com/zuminchina/21724> 참조)

체현하는 동시에, 자발적 동의나 냉소적 저항 혹은 반항 등의 반응 속에서 사회문화 질서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혁선봉 100인'을 우회적으로 삼아 향후 중국 개혁의 총체적 비전을 그려보되, 이를 사회주의 중국의 '인민 영웅'의 표창이라는 전통 속에서 독해하려 한다. '개혁선봉 100인'의 선정이 인민 영웅 표창의 맥락에서 고찰할 때, '개혁 선봉'의 특징 및 그 역사적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

## 2. 사회주의 시기 '모범노동자' - '육체노동'과 '헌신'

사회주의 중국은 의례적으로 국가 이념을 체현한 '인민 영웅'을 선정해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를 선양해 왔다. 사회주의 시기 이 인민 영웅은 주로 일선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회주의 시기 귀감이 되는 노동자를 선정해 '모범노동자'로 표창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1982년)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노동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모범노동자'의 선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노동은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국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노동집체경제조직의 노동자는 마땅히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태도로 자기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해야 한다”<sup>4)</sup>

여기에서 '모범노동자(勞動模範)'는 주로 농업이나 공업 등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진근로자(先進工作者)'는 국가기구나 공공기관 등 사무기관에 종사하

3) 양한순, 「모범노동자가 된 부자들: 시장권력의 성장과 현대 중국사회 모델의 변천」, 『국제지역연구』 16권 3호, 2007년, 130쪽.

4) 勞動是一切有勞動能力的公民的光榮職責。國有企業和城鄉集體經濟組織的勞動者都應當以國家主人翁的態度對待自己的勞動。國家提倡社會主義勞動競賽，獎勵勞動模範和先進工作者。國家提倡公民從事義務勞動。(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42조)

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 둘을 통칭해서 '모범노동자(勞模)'라 불렀다.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정부는 노동절에 모범노동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의례를 진행했고, 당 중앙과 국무원은 전국 범위에서 '전국 모범노동자'를 선정해 표창했다.

사실 헌법에 규정되기 전부터 '전국 모범노동자'에 대한 표창은 단속적이지만 의례적으로 진행됐다. 사회주의 초기 전국 모범노동자 평가의 기준은 '야근과 특근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사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주요한 기준<sup>5)</sup>이었다. 사회주의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표창이 있다가, 1979년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에 대해 이론적으로 개괄하고 이를 1982년 헌법 조항에 추가한 이후 1989년부터는 전국 모범노동자 평가 선정이 규범화<sup>6)</sup>됐으며, 5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진행됐다. 1950년 처음 시작된 '전국 모범노동자'에 대한 표창은 2019년 현재까지 총 15 차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시기 전국적인 '모범노동자'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에는 레이펑(雷鋒), 왕진시(王進喜), 천용구이(陳永貴), 스촨상(時傳祥), 자오위루(焦裕祿), 장빙구이(張秉貴), 멩타이(孟泰) 등이 있다. 이 중 왕진시, 천용구이, 스촨상, 장빙구이, 멩타이 등은 모두 전국 모범노동자로 표창을 받은 반면, 레이펑의 경우는 생전에 모범노동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에도 매년 3월 5일을 '전 국민이 레이펑을 배우는 날'로 기념할 만큼 레이펑은 모범노동자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레이펑은 1940년 후난 창사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6세 때 고아가 되었으며, 갖은 고생 끝에 20세에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에 가입했다.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서도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없는 보통 군인으로 생활했다. 그의 나이 22세였던 62년, 레이펑은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 앞에 놓인 목재를 치우다가 사고

5) "勞模評選引發三大爭議", 『南方周末』, 2005年 4月 28日.

(<http://news.sina.com.cn/c/2005-04-28/18586521703.shtml>, 2019.4.15. 최종검색)

6) 1989년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 표창 대회에 관한 통지」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4개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개혁개방 방침을 수호하고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모범노동자에 선정될 수 있다. (1) 기업의 생산 발전, 개혁의 심화, 경영관리의 개선, 경제 효과와 사회 효과의 제고 등 방면에 큰 공헌을 한 사람, (2) 농업 생산과 농촌 경제의 발전 방면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 (3) 연구,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등의 사업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 (9) 기타 방면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勞模評選引發三大爭議", 앞의 기사)

로 사망했다. 20년 겨우 넘는 그의 인생 동안 그는 한 번도 눈에 띄거나 압도적인 성과를 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 그의 일기장이 발굴, 출판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의 일기를 잠깐 살펴보자.

“1961년 10월 15일.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나는 나가지 않고 같은 내무반 동지들을 위해 5장의 침대보를 빨았고, 전우를 위해 1장의 담요를 꿰맸다. 또 취사병을 도와 600근의 야채를 씻었고, 실내외와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일을 했다... 그리고 보니, 나는 하루 종일 잡역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아주 기분이 좋다. 내무반의 동지들은 누가 자신들의 물건을 깨끗하게 세탁해 놓았는지 어리둥절해 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찢어진 담요를 누가 바꿔줬다고 놀라기도 했다. 사실, 내가 그를 위해 수선해 준 것인데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름 없는 영웅이 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나는 일상에서 작고 평범한 일들은 더 많이 하고 번드르르한 말은 적게 해야겠다.”<sup>7)</sup>



1963년 3월 5일 『해방군보』에 마오쩌둥이 쓴 ‘레이펑 동지에게 배우자’라는 제사가 실리면서 레이펑은 일약 ‘시대의 화신이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한 모범’<sup>8)</sup>으로 격상됐다. 사실 이 제사가 실리기 이전부터 레이펑을 영웅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다. 1963년 1월 국방부는 그의 일기장을 출판하고 그가 일하던 작업반을 ‘레이펑 반’으로 만들어 전시하며 레이펑 정신을 기렸다. 마오쩌둥이 제사를 발표하기 전인 1963년 3월 1일에는 주더(朱德)가 ‘레이펑을 배워 마오 주석의 훌륭한 전사가 되자’라는 제사를 썼고, 저우언라이는 레이펑 정신을 ‘애증이 분명한 계급 입장, 언행일치의 혁명정신, 공적이면서 사사로움을 잊은 공산주의 풍격,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산계급의 투지’에 있

7) 양한순, 앞의 논문, 140-141에서 재인용.

8) 辛惠, 『新中國令人敬仰的十大榜樣』, 『協商論壇』, 2012年第3期, 53쪽.

다고 개괄했다. 실제로 레이펑의 일기에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한 사회주의 전사로서의 다짐, 당에의 헌신 등이 넘쳐난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 속에 들어가야만 영원히 마르지 않듯이, 한 사람은 자신과 집단 사업을 일치시킬 때에야 힘을 가질 수 있다.”<sup>9)</sup>

“기억하자: 일에서는 적극성이 가장 높은 동지를 닮아가고, 생활에서는 수준이 가장 낮은 동지를 닮아 가자.”<sup>10)</sup>

오늘 \*\*\* 동지가 한 쪽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밥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왜 밥을 안 먹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오늘 아침 도시락 두 개를 먹고 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져온 도시락을 그에게 주었다. 조금 배가고팠지만 그를 배불리 먹이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 명언을 가슴 깊이 기억하자.

“동지를 대할 땀 봄처럼 따뜻하게  
일을 대할 땀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개인주의를 대할 땀 가을바람이 낙엽을 쓸어버리듯이  
적을 대할 땀 엄동처럼 잔혹하고 무정하게”<sup>11)</sup>

저우언라이의 정리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레이펑의 일기에서 ‘정직한 육체노동’, ‘도덕적 사회주의의 이상’, ‘자기희생정신과 실천’, ‘당에 대한 로열티’의 가치가 넘쳐남을 직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레이펑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체득하고 배울 수 있게 되어, 레이펑은 순식간에 모든 노동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9) 一滴水只有放進大海裏才能永遠不幹，一個人只有當他把自己和集體事業融合一起的時候才能有力量(雷鋒, 『雷鋒日記』, 1959년 10월 25일, 微信讀書)  
10) 要記住: 在工作上, 要向積極性最高的同志看齊 在生活上, 要向水平最低的同志看齊(雷鋒, 1960년 6월 5일의 일기)  
11) 我發現xxx同志坐在一旁看着大家吃飯。我走到他跟前, 問他爲啥不吃飯。他回答說: 我今天早上吃了兩盒飯, 沒有帶飯來。于是我拿出了自己帶的一盒飯給他吃。我雖然餓一點, 讓他吃得飽飽的, 這是我最大的快樂。我要牢牢記住這段名言: 對待同志要像春天般的溫暖, 對待工作要像夏天一樣的火熱, 對待個人主義要像秋風掃落葉一樣, 對待敵人要像嚴冬一樣殘酷無情。(雷鋒, 1960년 10월 21일의 일기)

왕진시는 1205 굴착팀과 함께 헤이룽장성 따칭(大慶)의 첫 유정(油井)을 개발한 공로로 전국 모범노동자가 되었다. 1960년 봄 따칭 유전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따칭에선 사상 초유의 규모로 석유시추 시설 건설이 전개됐다. 왕진시 역시 1205팀을 이끌고 따칭의 유정 개발 사업에 합류했다. 그가 따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도로도 없고 차량도 부족하고 심지어 먹고 자는 것 역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왕진시를 비롯한 동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 속도 높은 수준으로 유전을 손에 넣겠다'는 결심을 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왕진시와 동료들은 1963년 최초로 따칭 유정 개발에 성공했다. 1964년 1월 25일 『인민일보』는 1면 전면에 걸쳐 마오쩌둥의 '공업은 따칭을 배우자!'라는 호소를 실었고, 왕진시는 직접 마오쩌둥을 만나고 또 전국 모범노동자로 지명되었다. 이런 따칭의 신화는 '공업은 따칭을 배우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포스터, 노래, 영화, 오페라 등의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sup>12)</sup>, 따칭의 '철인' 정신을 배우자는 열풍이 전국에 불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 '독립 자주, 자력갱생'의 모델이 되었다.

천융구이는 산시성(山西省) 시양현(昔陽縣) 따자이(大寨) 사람으로 신중국 최초 농민 신촌(農民新村)을 만든 공로로 전국 모범노동자가 되었다. 사회주의 중국 초기 따자이는 매우 빈곤한 산간 지방이었다. 해방 이후, 따자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용감하게 산을 개간해 후터우산(虎頭山)에 계단식 논을 일구고 저수지 마련하고 숲을 가꾸어 농업 산출량을 크게 늘렸고, 이를 계기로 농업의 모델로 선정된다. 1964년 2월 10일 『인민일보』는 신화사 기자의 통신 보도인 '따자이의 길'을 싣고 따자이와 천융구이의 사적을 소개했다.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한 따자이의 경험은 '혁명정신으로 산간 지역을 건설한 훌륭한 모범'으로 소개되었으며, '농업은 따자이를 배우자'라는 슬로건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이끈 천융구이는 전국 모범노동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그는 1975년 저우언라이의 추천을 받아 국무원 부총리에까지 오른다. 시골 간부였던 천융구이가 중앙 정부 부총리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따자이가 정치적으로 매우

12) 양한순, 앞의 논문, 143쪽.

중요했음<sup>13)</sup>을 말해준다.

멍타이는 허베이 평문현 사람이다. 그는 '몸은 노동을 떠나지 않고 마음은 군중을 떠나지 않는' 태도로 안강(鞍鋼) 공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소련 정부가 중국에 대형 압연롤러(軋軋) 공급을 중단했을 때 안강 공장은 작업 중지의 위기에 몰렸었다. 이 때 멍타이는 기술 협회에서 500여 명 가량의 적극적인 사람들을 조직해 제철, 제강에서 주강(鑄鋼)까지 공장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고, 마침내 대형 압연롤러의 자체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중국 야금사에 있어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촨양의 기사 역시 감동적이다. 스촨양은 베이징 충원문(崇文門) 근처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그는 '나 스스로 냄새나는 일을 해 모든 집을 향기롭게 만들겠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화장실 청소와 분노 푸는 일을 했다. 그가 평생 푼 분노는 5톤이 넘는다고 전해지며, 1959년 전국 모범노동자로 표창을 받았다.

사회주의 시기 이러한 '모범노동자'의 선정 및 이들의 모델 작용은 모든 사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철인 왕진시를 대표로 하는 모범노동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력이 되었고, 당시 모든 사회생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sup>14)</sup>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 사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를 들면 정치 활동이나 생산 활동 심지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활동이나 환경 위생 등의 활동까지 모두 전당적 동원, 전민적 동원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사회생활의 절차화, 규칙화 정도가 매우 낮은 사회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델과 전형을 수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도록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운용하는 효과적인 방식'<sup>15)</sup>이었다고 순리핑은 설명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전국 모범노동자가 대부분 60년대 초반 선정된 인물이

13) 양한순, 앞의 논문, 144쪽. 1964년 마오쩌둥이 '농업은 따자이를 배우자'라고 호소한 이후 따자이 신화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따자이는 성지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서 1천 만 명에 이르는 농민들이 이 산골 마을을 견학했으며, 외국 국민이나 외국인들도 이 마을을 방문했다. 전국의 농민들은 따자이를 모방해 자신들의 자립경제 계획을 수립했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 전국 농촌 노동력의 1/3이 토지개간, 경지정리, 관개시설 건설에 투입되었다(양한순, 앞의 논문, 144-145쪽)

14) 孫立平, 「勞模評選的尷尬」, 『社會轉型』, 2005年第六期, 52쪽.

15) 孫立平, 앞의 논문, 52쪽.

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소련 기술과 자원의 이탈, 그리고 잇따른 대약진의 실시와 실패로 인해 물질 자원과 기술 및 지식이 극도로 결핍되었던 때, 레이펑처럼 군 조직을 위해 극도의 자기희생을 하는 인물, 왕진시처럼 아무런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맨 몸으로 유정을 개척하는 인물 등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만으로 기술과 자원, 자본의 결핍을 메꾸고 공업화를 이룬 생생한 모델이 된 것이다.

### 3. 2005년, '모범노동자' 시장 모델로의 전환: 농구 스타 야오밍의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을 둘러싼 논쟁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의 역사에서 2005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례적인 해라 기록될 만하다. 먼저 전국 모범노동자 후보 명단 중 처음으로 민영기업가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점, 둘째, 전국 모범노동자에 처음으로 농민공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점, 셋째, 전국 모범노동자 및 선진공작자 후보 명단이 처음으로 미리 전국 범위에서 공시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전국 모범노동자 후보가 공시되자마자 사회 각계에서 큰 논쟁이 일었는데, 논쟁은 주로 세 가지 방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야오밍(姚明), 류상(劉翔) 등 스포츠 스타에게 전국 모범노동자 표창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둘째, 포브스가 중국 대륙 최고의 부호로 꼽은 민영기업가 류융하오(劉永好)<sup>16)</sup>에게 전국 모범노동자 표창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셋째, 이번 전국 모범노동자 후보에는 또 다수의 정부 관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치지도자 간부가 모범노동자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한가?<sup>17)</sup>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제기는 대개 문제적인 인물인 스포츠 스타 '야오밍이 전국 모범노동자로 선정된 것이 적절한가'의 논의로 뭉뚱그려졌다. 같은 스포츠 스타라도 당시 중국에서 활동했던 류상<sup>18)</sup>과는 달리, 야오밍은 미국

16) 신희망그룹(新希望集團)의 총수인 류융하오는 2005년 당시 약 93억 9천만 위안(당시 약 11억 6천 달러에 상당)의 자산 규모로 2005년 포브스 선정 중국 부호 5위를 기록했다.

17) “勞模評選引發三大爭議”, 앞의 기사.

NBA에서 활동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전국 모범노동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더욱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었다.

'야오밍이 전국 모범노동자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들끓는 문제제기는 물론 야오밍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개혁개방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가치의 하락과 빈부격차의 격화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반대 여론은 레이펑, 왕진시 등 전통적인 모범노동자에 비추어 야오밍의 모범노동자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모범노동자란 마땅히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보통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이 설사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보통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거나 혹은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보상은 제대로 못 받았다. (중략) '모범노동자' 표창은 국가와 정부가 이런 보통 노동자의 오랜 동안의 높은 헌신과 낮은 보답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것이다"<sup>19)</sup>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의견이 그저 만들어낸 이미지에만 의지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회주의 중국 시기 공장이나 생산대와 같은 일선의 평범한 일터, 한정된 자원을 보충하는 희생적인 육체적 헌신 등이 전통적인 모범노동자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모범노동자 표창은 이런 보통 노동자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적 명예<sup>20)</sup>를 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국 모범노동자의 역사에 비추어, 야오밍 같은 세계적 스포츠 스타, 류융하오 같은 세계적 부호는 전적으로 모범노동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는 모종의 배신감까지 불러일으킨다. 야오밍이나 류상 혹은 세계적 부호인 류융하오 등은 이미 자기의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넘칠 정도로 받아 이미 대중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는데<sup>21)</sup>, 그들에게 또 다시 국가의 명예를 주는 것이 적합하

18) 潘多拉, 「評勞模還是評“大腕”」, 『民主』, 2005.6, 43쪽.

19) 潘多拉, 앞의 논문, 43쪽

20) 실제로 사회주의 중국 시기 모범노동자가 받는 보상은 '일정 정도의 노동 보함과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개혁개방 이후 일정 정도의 퇴직금 인상(1978년 국무원 규정), 단기 휴가(1982년 전국총노동자협회 통지), 임금 2호봉 인상(1989년 국무원 결정), 일회적 상여금 수여(2000년 이후) 등 점진적으로 물질적 보상을 늘려갔지만, 기본적으로는 명예를 주는 것이었다. "勞模評選引發三大爭議", 南方周末, 2005年 4月 28日.

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했으며, 이들은 사람들에게 모델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승자독식’의 패배감을 안겨줄 것<sup>22)</sup>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야오밍 등 전국모범노동자 선정을 둘러싼 반대여론에 대해 관방이 밝힌 입장을 통해 중요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범노동자 선정 기준에 있어 ‘국가 산업경제에 대한 (양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야오밍의 선정에 대해 당시 인사부(人事部) 부부장 인웨이민(尹蔚民)은 ‘최근 야오밍은 국가를 대표해 두 번의 올림픽, 한 번의 세계농구선수권대회, 한 번의 아시안게임과 세 번의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에 참여했으며, 조국을 위해 명예를 얻었다. 그는 평가 선정 추천 범위에 부합하며 평가 선정 추천의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푸단 대학 사회학과 위하이(于海) 교수 역시 ‘농구를 통해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다<sup>23)</sup>고 지원사격을 했다. 또 류융하오의 선정에 대해서 당시 중화전국총노동조합(中華全國總工會) 부주석이자 서기처 제일서기 장권쥬(張俊九)는 표창을 받은 민영기업가(류융하오를 포함해 2005년 전국 모범노동자로 선정된 민영기업가를 가리킴)는 주로 중앙통전부(中央統戰部)와 발전과개혁위원회(發展與改革委員會) 등 5개 부문이 2004년 전국 비공유경제(非公經濟)인사 중에서 선정한 100인 중‘우수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업 건설자’와‘기타 성부급 모범노동자’ 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말인즉슨, 2005년의 류융하오의 선정은 그 전에 중앙통전부와 발전과개혁위원회에서 비공유경제 인사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야오밍과 류융하오의 선정에 대한 관방의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은 ‘국가 발전’, ‘국위 선양’, ‘중국 특색사회주의 건설에의 공헌’ 등 국가 발전의 양적 기준 및 그 가치이다.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성공한 개인의 재부가 국가 재부의 총량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런 세계적 부호의 등장이 반가운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급 명예가 아니라 하필 ‘모범노동자’여야 했을까?

21) Wang Chih-ming, “Capitalizing the Big Man: Yao Ming, Asian American, and the China Global”, *Inter-Asia Cultural Studies* 5(2), 263-278쪽.

22) 孫立平, 앞의 논문, 52-53쪽; 潘多拉, 앞의 논문 44쪽.

23) 양한순, 앞의 논문, 127쪽에서 재인용.

사실 '야오밍'의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 체계가 변화하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한 추세를 대표한다. 장쉐민(張學民)은 야오밍이나 류융하오 등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 역시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모범노동의 구조와 기준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개인기업가는 사회적 재부를 창조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취업을 촉진하니 역시 노동자의 범주에 속한다'<sup>24)</sup>고 말했다. 장권주 역시 '노동'의 의미와 범위가 이미 확대되었음을 상기시켰다. 2002년 중공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張澤民)은 15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해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개창하자(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란 제목의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인민과 사회에 유익한 모든 노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육체노동이든 아니면 정신노동이든, 단순한 노동이든 복잡한 노동이든, 우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공헌을 한 노동이라면 모두 영광스러운 것이며 마땅히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 (...) 조국의 부강을 위해 힘을 공헌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단결해야 하며 그들의 창업정신에 대해서 모두 격려해야 하며 그들 중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 표창해야 한다.”<sup>25)</sup>

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서 드러난 '노동'과 '노동자' 범위의 확대는 2000년 장쩌민이 제기한 '3개 대표론'을 위한 사상적 기초를 놓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의 발전 요구, 선진 문화의 발전 방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은 농민·노동자를 넘어서 자본가와 지식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이는 곧 '노동자 계급이

24) 張學民, 「今年全國勞模評選的新變化」, 『中國石化』, 2005年第七期, 82쪽.

25) 2002년 중국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江澤民의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보고 중 “要尊重和保護一切有益於人民和社會的勞動, 不論是體力勞動還是腦力勞動, 不論是簡單勞動還是複雜勞動, 一切爲我國社會主義現代化建設作出貢獻的勞動, 都是光榮的, 都應該得到承認和尊重”, “對爲祖國富強貢獻力量的社會各階層人們都要團結, 對他們的創業精神都要鼓勵, 對他們中的優秀分子都要表彰”

영도'하고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중국의 헌법 정신과 사회주의 정신을 포기한 것이라는 염려를 낳았다. 하지만 2002년 장쩌민의 연설에서 드러난 바, 장쩌민은 3개 대표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본래의 '노동'과 '노동자'의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확장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공헌을 한' 사람이라면 또 '조국의 부강을 위해 힘을 공헌한 사람이라면 그가 시장에서 보상을 얼마나 받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 상관없이 '모두 영광스러운 것이며 마땅히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권위있는 확인을 해주었다.

'모범노동자'는 처음부터 계획경제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모범노동자'가 중시한 것은 목표의 초과달성이나 혹은 사전 달성, 야근과 특근, 헌신과 희생 정신 등이었고, 그 시기 대부분의 모범노동자는 일선 노동자였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범노동자의 구조와 기준, 선정에 있어 추세적 변화가 발생했다. 이제 일선 육체노동자를 포함해 정신노동, 관리자, 정책결정자, 개인사업가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로 확장되었고, 또 기업관리자, 정책결정자 등 경영인과 간부, 특히 민영기업 경영인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졌다. 이런 '노동' 개념의 확장과 분화는 물론 사회의 다원화, 복잡화의 산물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개혁개방, 개혁심화, 생산력발전 등에 대한 공헌도가 '모범노동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1989년 '일선노동자의 선정 비율이 32%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규정<sup>26)</sup>만이 사회주의 정신의 화석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2005년 '야오밍의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이 드러낸 논란은 '노동'과 '노동자'의 정의와 범위의 변화 그 이상이다. 만일 국가 표창이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 스포츠 스타나 민영기업가 등을 다시 한 번 승인하는 것에 그친다면 국가

26) 일찍이 1989년 전국 모범노동자대회에서는 특별히 "기업생산과 심화개혁의 발전, 경영관리의 개선, 경제효과와 사회효과의 제고 등 방면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 사람"은 전국모범노동자의 후보에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전국모범노동자대회주비위원회는 "각지에서 평가 선정된 사람 중에서 일선 노동자의 비율은 32%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세웠다. 이후로 기업경영자와 관리자가 대폭으로 모범노동자로 이름을 올려 왔으며, 2002년 장쩌민의 16차 당대회 보고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창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도전받게 될 것이다. 또 류융하오의 예처럼 노동조합이 모범노동자의 후보로 '기업가'를 추천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과 의미 역시 퇴색되고 말 것이다. 또 국가가 나서서 한정된 국가 자원을 승리자에게 몰아준다면 역시 국가의 자원 분배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27)</sup> 사실 '야오밍의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은 정부의 직능, 노동조합의 역할, 자원분배에 있어 '시장을 우선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 4. '모범노동자'에서 '개혁선봉'으로

2005년 '야오밍'을 둘러싼 대 토론 이후에도 전국 모범노동자는 계속 선정되었지만 이제 '인민 영웅'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국 모범노동자는 어떤 새로운 모델도, 사회적 이슈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개혁선봉 100인'으로서 또 다른 인민 영웅의 모델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당 중앙은 '개혁개방 40년'을 맞아 개혁개방을 위해 눈부신 공헌을 한 개인을 표창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반복적인 비교 선정, 조직적 고찰, 집단적 연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 구술 심사와 종합적 고려를 통해 100명의 표창 대상을 선정했다. 최종 발표와 표창은 201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 때 진행했다. 그리고 기념대회 이튿날인 12월 19일부터 『인민일보』는 신문 두 면을 할애해 '개혁선봉 100인' 열전을 연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개혁선봉의 풍채(改革先鋒風采)』<sup>28)</sup>라는 단행본이 편찬됐다.

'개혁선봉 100인'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 이름은 성의 획수순)

위민(于敏)-국방기술사업 개혁발전의 중요한 추동자

위이(于漪)-기초교육 개혁에서의 우수 교사

27) 孫立平, 앞의 글, 52-53쪽.

28) 中央慶祝改革開放40周年表彰工作領導小組辦公室編, 『改革先鋒風采』, 北京, 党建讀物出版社, 2019年.

- 샤오강촌 ‘청부생산’의 선구자(小崗村“大包干”帶頭人)-농촌개혁의 선행자
- 마완치(馬萬祺)-중국내지에 솔선 투자한 마카오 저명 기업가이자 사회 활동가
- 마윈(馬雲)-디지털경제의 혁신자
- 마화텅(馬化騰)-‘인터넷+’ 행동의 탐색가
- 마산상(馬善祥)-기층 사회관리 혁신의 우수인민 조사원
- 왕다형(王大珩)-‘863’ 계획의 주요 창도자
- 왕수마오(王書茂)-해양 권리수호(維權)의 모범
- 왕용민(王永民)-한자 정보화를 추동한 ‘王碼五筆’자형의 발명가
- 왕유더(王有德)-과학적 사막 개조의 탐험가
- 왕보상(王伯祥)-‘서우광 채소(壽光蔬菜)’ 브랜드 창조로 농업의 산업화를 추동한 전형적 대표
- 왕치민(王啓民)-과학기술로 석유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보호한 따칭(大慶)의 ‘신 철인’
- 왕취안(王選)-과학기술 체제개혁의 실천적 탐색자
- 왕관칭(王寬誠)-국가건설과 개혁개방을 지지한 홍콩 공상계의 우수한 대표
- 왕자푸(王家福)-依法治國를 추동한 이론혁신가
- 왕잉(王瑛)-‘전면종엄치당(全面從嚴治黨)’한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우수 대표
- 웨이창진(韋昌進)-개혁개방 평화환경을 보위한 전투 영웅
- 웨이환닝(韋煥能)-기층 군중자치 제도의 탐색자
- 취샤오린(巨曉林)-지식형 기업 직원의 우수 대표
- 콩관선(孔繁森)-당원 지도자 간부의 모범
- 리이닝(厲以寧)-경제체제개혁의 적극 창도자
- 예충(叶聰)-유인심해탐사선 사업의 실천자
- 선지란(申紀蘭)-초심을 지킨 농촌의 선진적 모범 대표
- 스주용(史久鏞)-외교 영역에서 국가이익의 충실한 수호자
- 란사오즈(冉紹之)-산샤 이민 사업의 실천적 탐색자
- 바오치판(包起帆)-항구 하역 자동화의 혁신자
- 니마둔주(尼瑪頓珠)-티벳 목축업구역 개혁의 선두
- 팅·바터르(廷·巴特爾)-목축업구역에 뿌리를 내리고 목축민을 이끌고 빈곤사업을 한 우수한 기층간부
- 류한장(劉漢章)-국유기업 ‘한단철강경험(邯鄲經驗)’의 창조자
- 류융hao(劉永好)-민영기업가의 우수 대표
- 쉬리룽(許立榮)-원양 운수 체제 개혁의 추동자
- 쉬전차오(許振超)-‘장인정신’ 실천의 우수 대표
- 쉬하이핑(許海峰)-중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 쉬충더(許崇德)-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 건설의 적극 추동자

- 순융차이(孫永才)-‘푸싱호(復興號)’ 고속철도연구의 주도자  
 순자둥(孫家棟)-항공 과학기술사업 혁신발전의 중요한 추동자  
 두룬성(杜潤生)-농촌개혁의 중요한 추동자  
 리수푸(李書福)-민영 자동차산업의 개방과 발전의 우수 대표  
 리둥성(李東生)-전자산업에서 국제시장을 연 개척자  
 리구이(李谷一)-개혁개방을 노래한 가수  
 리바오궈(李保國)-산간 구역에 빈곤 구제(扶貧)를 위해 신로를 개척한 타이항산의 우공(太行山愚公)  
 리엔홍(李彥宏)-귀국 창업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한 우수 대표  
 리쉐젠(李雪健)-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널리 알린 우수한 예술가  
 양산저우(楊善洲)-일생을 ‘처음처럼’ 헌신한 퇴직 간부의 모범  
 부신성(步鑫生)-도시 집단기업(集體企業) 개혁의 선행자  
 우런바오(吳仁寶)-화시촌(華西村) 개혁 발전의 선두  
 우량융(吳良鏞)-거주환경과학의 창건자  
 우진인(吳金印)-향진 기층 당원간부의 우수 대표  
 우룽난(吳榮南)-샤먼항공(廈門航空) 사업의 개척자  
 추어궈(邱娥國)-기층 사회관리 혁신의 우수한 민경 대표  
 허상젠(何享健)-향진기업개혁 상장의 선행자  
 허자이(何載)-간부정책과 평반(平反)의 실수를 바로잡은 집행자  
 위류펀(余留芬)-최빈곤지역에서 촌민과 함께 탈빈공격전(脫貧攻堅戰)을 이끈 우수 대표  
 저우비화(鄒碧華)-사법체제개혁의 ‘등대’  
 쿠르반·니야즈(庫爾班·尼亞孜)-민족의 단결과 진보의 실천가  
 장웨이자오(張月姣)-대외개방 법제건설의 적극 실천가  
 장루이민(張瑞敏)-기업관리의 혁신을 중시하는 우수기업가  
 장리밍(張黎明)-혁신형 1선 노동자의 우수 대표  
 장바오(張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모범 검찰관  
 천르신(陳日新)-중외합작 ‘핑수어 모델’의 창시자  
 천펑푸전(陳馮富珍)-‘일대일로’ 위생 부문 합작의 추동자  
 천징룬(陳景潤)-청년이 과학의 봉우리에 오르도록 격려한 전범  
 마오융홍(茅永紅)-社區의 당 건설과 관리 혁신의 탐색자  
 린이푸(林毅夫)-경제체제개혁이론의 탐색자  
 제상·쉬난다제(杰桑·索南達杰)-커커시리(可可西里)와 산장위안(三江源) 생태환경보호의 선구  
 뤼양(羅陽)-생명으로 항공 보국을 실천한 우수 대표  
 저우밍진(周明金)-농촌 기층의 당 건설 ‘라이시 경험(萊西經驗)’의 실천혁신가

정취쉬안(鄭舉選)-소상품 시장 '한정가(漢正街)' 모델의 주요 개창자  
 정더룽(鄭德榮)-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이론 연구의 추동자  
 랑핑(郎平)-'여자배구 정신'을 만들고 전승한 우수 대표  
 후샤오옌(胡小燕)-개혁개방 중 솟아난 우수 농민공 대표  
 후푸밍(胡福明)-'진리표준' 대토론의 대표 인물  
 난런둥(南仁東)-'중국 하늘의 눈(FAST)'의 주요한 발기자이자 기초자  
 난춘후이(南存輝)-원저우 민영 경제의 우수 대표  
 류촨즈(柳傳志)-과학기술 산업화의 선행자  
 중난산(鐘南山)-공공위생사건 응급체계건설의 중요 추동자  
 위귀강(禹國剛)-자본시장 발전의 실천가  
 스팅난(施光南)-개혁개방의 찬가를 쓴 음악가  
 야오밍(姚明)-체육 영역에서의 교류와 개방의 우수 대표  
 친전화(秦振華)-'장자강 정신(張家港精神)'의 창시자  
 위안경(袁庚)-개혁개방 시범구역 '셔커우 모델'의 탐색 창립자  
 위안룽핑(袁隆平)-잡교벼 연구의 개창자  
 니룬펑(倪潤峰)-'군기업의 민간기업으로의 전환' 실천의 개창자  
 귀밍이(郭明義)-'레이펑 정신'의 전수자  
 투유유(屠呦呦)-중의약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우수 대표  
 장즈룽(蔣子龍)-'개혁문학'의 대표 작가  
 장자지(蔣佳冀)-공군 실전화 혁신 전범의 우수 대표  
 징하이펑(景海鵬)-중국 최초의 우주인(三巡蒼穹의 영웅)  
 청카이자(程開甲)-핵무기 사업의 개척자  
 루관추(魯冠球)-향진기업 개혁발전의 선구자  
 정웬즈(曾憲梓)-국가 개혁개방에 힘을 쏟은 홍콩의 저명 기업가  
 셰진(謝晉)-사상해방과 발란반정(撥亂反正)을 도운 영화 예술가  
 셰가오화(謝高華)-이우(義烏) 소상품 시장의 촉진자  
 루야오(路遙)-1억 농촌청년이 개혁개방에 투신하도록 도운 우수 작가  
 바오신민(鮑新民)-'푸른 산이 금이요 은이다' 이념의 실천가  
 판진스(樊錦詩)-효과적인 문물 보호의 탐색가  
 판첸웨이(潘建偉)-양자정보 연구의 혁신가  
 휘잉둥(霍英東)-국가 개혁개방을 위해 걸출한 공헌을 한 홍콩의 저명 기업가  
 이자 사회 활동가  
 다이밍명(戴明盟)-항공모함 전투력 건설의 실천적 탐색가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의 면면을 보면, 성별, 민족(신분), 정치색, 연령, 지

역, 중사 분야 등에서 고른 안배를 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남성, 한족, 공산당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비주류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성 11인, 비-한족 8인(티벳족 2인, 회족 2인, 위구르족 1인, 몽골족 1인, 만주족 1인, 장족(壯族) 1인), 비-공산당원 9인(93학사사원(93學社社員) 2인, 무당파 6인, 군중 1인), 홍콩/마카오 출신 4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4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56인, 50년대 출생한 사람이 20인, 60년대가 16인, 70년대가 5인, 80년대가 2인(이 외 小崗村 농민들 1팀 포함 총 100인)의 분포를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기업가가 21인으로 전체 20%를 넘게 차지한 반면 노동자는 3인만 선정되고, ICT, 전파망원경, 중의학, 핵기술, 양자학, 종자학 등 과학 기술 방면에서 16명이 선정되는 등 기업가와 과학기술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아래는 개혁선봉 100인을 분야별로 정리한 표이다(비중이 높은 순).

기업가	21인
과학기술(ICT, 핵, 중의학, 항공우주, 심해탐사 등)	16인
기층사업	8인
당/간부	7인
문화예술	7인
농업/농촌	6인
사범	5인
시장경제	4인
산업기술	3인
노동자	3인
스포츠	3인
환경 생태	3인
마르크스주의 이론	2인
경제이론	2인
개혁개방을 지지한 해외 기업가	2인
국방	2인
공공위생	2인
교육	2인
사구(社區)	1인
외교	1인

‘개혁선봉 100인’의 열전을 일람하다 보면 ‘탐험’, ‘탐색’, ‘기술’, ‘혁신’ 등의 가치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시기 모범노동자를 통해서 육체노동과 자기헌신의 정신이 구체화되고, 개혁개방 시기 모범노동자를 통해서 ‘성장’과 ‘발전’, ‘시장’의 가치가 구체화됐다면, 이제 2018년 개혁개방의 결실점에선 ‘개혁선봉’을 통해 ‘혁신’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들 ‘개혁선봉’은 하나같이 개혁 초기 체제 전환의 시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누구보다 먼저 개척과 탐험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성공을 거두고 하나의 모델이 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상 농촌 가정청부생산(農村土地承包) 제도를 이끌어 낸 샤오강촌(小崗村)의 농민들이 ‘농촌개혁의 선행자’라는 칭호를 받은 것을 필두로 해, ICT 분야에서 한자입력 기술을 개발한 왕용민이 ‘王碼五筆’자형의 발명자, 한자 레이저 조판시스템(漢字激光照排系統)과 광정 칼라 출판 시스템 연구개발 주도한 왕쉬안이 ‘과학기술 체제개혁의 실천적 탐색가’, BAT의 창업자 바이두의 리옌훙이 ‘귀국 창업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한 우수 대표’, 알리바바의 마윈이 ‘디지털경제의 혁신자’, 텡선의 마화팅이 ‘인터넷+ 행동의 탐색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개척과 탐험의 정신은 기술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개혁선봉은 민영·국영·향진·군전민(軍轉民) 등 다양한 기업의 기업가를 다수 선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업실적이나 자산 규모만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이 기업들이 기술, 영업 모델, 경영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었느냐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류융하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류융하오와 그의 4형제는 개혁개방이 시작되자마자 ‘철밥통’인 공직을 포기하고 대담하게 신진현(新津縣) 구자촌(古家村)으로 가 종자를 심고 양식을 했다. 그들은 닭을 기르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결국 중국 최초 애저 사료(乳猪配方飼料)인 ‘희망1호’를 연구 개발했다. 이 ‘희망1호’는 시장에서 곧 수입 사료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세계 시장에까지 진출했다. 류융하오가 이끈 기업 역시 사료 생산, 농업 과학기술, 식품 가공에서 시작해 금융 서비스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전 세계 30여개 국가와 지역에 600여 개가 넘는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16년 연속 ‘중국 5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신희망 그룹의 매출은 1천 억 위안(약 한화 16조)을 넘어섰다.

둘째 ‘개혁 선봉’은 또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이 혁신을 통해서 그 분야의 도약적 발전을 이끌어 낸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레이펑 정신의 전수자’라는 칭호를 받은 이는 귀밍이(郭明義)를 들 수 있다. 그의 인생 역정은 여러모로 레이펑과 비슷하다. 귀밍이 역시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으며 공장에서 일했었다. 그는 운전병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월급을 모아 재난 지역에 성금으로 보내’거나 빈곤 학생을 돕는 성금으로 썼다. 최근 ‘귀밍이를 따라 레이펑을 배우자’를 주제로 한 자원봉사 단체가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데, 봉사 누적 횟수 1000회 기록, 지원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군대나 공장에서의 경력,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정신 등은 모두 레이펑을 떠올리게 충분하다. 그런데 이 레이펑 정신의 계승자에게서 레이펑에서와 달리 두드러지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귀밍이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에 몰두했다(幹一行、愛一行、鑽一行)’. 안강 광산에서 대형트럭 운전사로 일할 때 그는 두 번째 해에 단일차량 생산량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 수입 자동차 조립의 중점 공정을 이어받았을 때 그는 영어를 공부해 1년 만에 외국 전문가의 어엿한 통역을 할 수 있었다.<sup>29)</sup>

자신의 일에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것 외에 귀밍이는 작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영어를 ‘공부’했고, 그의 영어 수준은 외국 기술 서적을 번역하고 외국 전문가의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사회주의 시기 ‘레이펑’은 자기희생, 당에의 충성 등의 정신을 체현했다면, 개혁개방 이후 ‘레이펑’은 시장경제 체제에의 헌신을 상징하거나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세속화<sup>30)</sup> 되어갔다. 그러다가 2018년 귀밍이를 통해 일과 동료에 헌신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자

29) “走上工作崗位，郭明義仍是“幹一行、愛一行、鑽一行”。當鞍鋼礦山的大型卡車司機，他第二年就創造單車產量的最高紀錄；接到安裝進口電動輪的重點工程，他苦學英語，一年就成為外方專家的合格翻譯”（中央慶祝改革開放40周年表彰工作領導小組辦公室編，《改革先鋒風采》，257-259쪽）

30)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권형진·이종훈 엮음, 『대중독재의 영웅 만들기』, 서울, 휴머니스트, 2005, 146-149쪽.

기혁신과 기술혁신을 이루고, 더 나아가 탈빈(脫貧) 활동까지 이끄는 시대적 영웅으로 거듭난다.

사회주의 시기 왕진시가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최초로 유전 시추를 한 것으로 '철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면, 2018년 왕치민은 '과학기술을 통해 시추를 하고 석유 생산을 안정시킨 신 철인(科技興油保穩產的大慶“新鐵人”)'이라는 칭호를 부여받는다. 레이펑 정신을 전수한 귀밍이와 마찬가지로, 기술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이로써 따칭 유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킨 공헌을 인정한 것이다. 1961년 베이징 석유학원(北京石油學院)을 졸업한 왕치민은 따칭으로 갔으며, 모든 유전기술개발에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 60년대 3천 여일을 텐트에서 지내며 유정에 들어가 샘플을 채취했다. 70년대 동료와 함께 1천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채집, 분석해 결국 '고수분 함량기 오일-수분 포화도'를 완성했고, 이로써 80년대 고수분 함량기에도 석유 생산 10년의 목표를 실현시켰다. 그와 동료들의 노력 하에 따칭 유전은 연간 5천 만 톤 이상 생산을 27년을 이어올 수 있었으며, 이는 세계 동류의 유전이 겨우 12년만 생산할 수 있던 것과 비교할 때 중국 기술의 쾌거라 자랑할 만한 것이다.

2005년 국위 선양으로 전국 모범노동자에 오른 야오밍의 경우, 2018년엔 '체육 영역에서 교류와 개방의 우수 대표'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는 중국 남자 농구의 기수이면서 NBA 휴스턴 로키츠 팀의 핵심 멤버이며 상하이 남자 농구 클럽의 회장이자 야오 펀드의 발기인 및 중국 남자 농구협회 주석이다. 이런 화려한 인생 역정 중, 개혁선봉 열전은 특히 야오밍이 아시아인 최초로 2016년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다. 작가 프랭크는 야오밍의 이번 입성을 들어 '이는 그의 키 때문만이 아니라 농구의 국제화를 위한 그의 공헌 때문이다. 농구 영역에서의 그의 성취 때문만이 아니라 연결과 교류를 위해 일으킨 작용 때문이다. 또 농구장에서 그가 보여준 덩크슛의 스펙터클 때문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이해와 교류를 위해 그가 놓은 기초 때문이다.'<sup>31)</sup>라는 헌사를 바쳤다. 개혁선

31) “姚明是跨越大洋的文化和交流的巨人！打開門，提高房頂，因為姚明要來了，奈史密斯籃球名人堂因為姚明的加入變得更大了。當然這不僅僅是因為他的身高，更因為他為籃球國際化做出的貢獻；不僅僅因為他在籃球領域的成就，更因為他作為連接紐帶起到的作用；也不僅僅因為

봉으로서 야오밍의 열전에서 강조되는 것은 NBA에서의 그의 실적이거나 스타성, 천문학적 개런티가 아니라 동서양의 이해와 교류의 증진을 위해 그가 이룬 공헌이다. '그에게서 세계는 새로운 중국 청년 세대의 자신감, 진취성, 우호를 보았다.'

## 5. 다시 제기되는 문제

지금까지 사회주의 중국의 '인민 영웅'의 맥락에서 '개혁선봉'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개혁선봉'은 이전의 인민 영웅이 노동과 자기헌신의 가치를 체현하거나(사회주의 시기) 혹은 '국위선양', '양적 발전'의 가치를 실현(개혁개방 이후)한 '모범 노동자'와는 달리 개척과 탐험의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또 부단한 연구 개발을 통한 자기 혁신으로써 질적 도약을 이뤄내는 영웅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개혁선봉'의 일대기는 높은 질적 발전 단계에서의 '개혁'이 어떤 미덕을 갖춰야 할지, 또 그러면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개혁선봉'의 '개척과 탐험의 정신', '자기 혁신', '질적 도약' 등의 가치의 총합은 향후 중국의 개혁 담론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리를 통해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첫째, '개혁선봉'을 통해 드러난 가치는 하나의 이념태로서 방향을 제시할 뿐, 현실의 개혁 상황을 보여주진 못한다. 이 가치에 기반해 현실 개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둘째, 개혁선봉에서 종합된 가치들은 피터 드러커의 '지식사회'론과 슈페터의 '혁신이론'을 상기시킨다. '개혁선봉'의 가치와 향후 중국 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이들 이론과 함께 꼼꼼하게 독해할 필요가 있다.

他在場上一次次扣籃帶來的觀賞性，更因為他為東西方的理解和交流夯下的基石。”（『改革先鋒風采錄』，242-244쪽）

〈參考文獻〉

[1차 자료]

中央慶祝改革開放40周年表彰工作領導小組辦公室編, 『改革先鋒風采錄』,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19年.

[2차 자료]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권형진·이종훈 엮음, 『대중독재의 영웅 만들기』, 서울, 휴머니스트, 2005.

슈테판 츠바이크 지음, 안인희 옮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서울, 바오 2009년.

J. A. 슈페터 지음, 정도영 옮김, 전철환 해제, 『10대 경제학자』, 서울, 한길사, 1998.

쑤리핑 지음, 김창경 옮김, 『단절』, 서울, 산지니, 2010.

요시카와 히로시 지음, 신현호 옮김, 『케인스 vs 슈페터』, 서울, 새로운 제안, 2009.

요제프 슈페터지음, 이종인 옮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서울, 북길드, 2016.

이근, 『동아시아와 기술추격의 경제학』, 서울, 박영사, 2007.

이종화·장윤미 지음, 『열린 중국학 강의』, 서울, 신아사, 2017.

추이 즈위안 지음, 장영석 옮김, 백승욱 대담,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 창비, 2005.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지음, 이은주 옮김,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서울, 미래의 창, 2018.

Yang, Han-Sun, Celebration of wealth and emulation of modernity: the politics of model tourism in China's richest vill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6.

양한순, 「모범노동자가 된 부자들: 시장권력의 성장과 현대 중국사회 모델의 변천」, 『국제지역연구』 16권 3호, 2007년 가을.

\_\_\_\_\_, 「부자와 순례자들: 중국 제일 부촌에서의 탈사회주의 모더니티 관광」, 『한국문화인류학』 40권 2호, 2007년 11월.

\_\_\_\_\_, 「인류학: 중국식 신자유주의와 차별화된 공동체 성원권 -성공한 향진기업 화서촌(華西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5권, 2008.

\_\_\_\_\_, 「가짜 논쟁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억되는 레이펑」, 『East Asia Brief』 7권2호, 2012.

龔彩虹, 『我國勞模激勵制度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 雷鋒, 『雷鋒日記』, 微信讀書.
- 李泓冰, 《勞模》姚明之外 華東新聞 2005年4月1日.
- 魏爽, 『模范形象建构的學會學解讀』,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辛惠, 「新中國令人敬仰的十大榜樣」, 『協商論壇』, 2012年第3期.
- 孫立平, 「勞模評選的尷尬」, 『社會轉型』, 2005年第六期.
- 潘多拉, 「評勞模還是評“大腕”」, 『民主』, 2005.6.
- 張學民, 「今年全國勞模評選的新變化」, 『中國石化』, 2005年第七期.
- 周曉瑾, 『《人民日報》的“英模報導”研究(1950-2002)』, 蘭州交通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Wang Chih-ming, “Capitalizing the Big Man: Yao Ming, Asian American, and the China Global”, *Inter-Asia Cultural Studies* 5(2).
- “勞模評選引發三大爭議”, 『南方周末』, 2005年 4月 28日.  
(<http://news.sina.com.cn/c/2005-04-28/18586521703.shtml>)
- 류허, “높은 질적 발전을 추동해 전지구적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공동으로 촉진시키자”, 2018년 다보스 포럼 연설, 2018.1.24.  
(<http://hub.zum.com/zuminchina/21724>)

〈Abstract〉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National Reform Discourse

Kim, Jung-Soo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national reform discours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eroic narrative of the ‘100 pioneers of reform and Opening-up’.

The ‘100 pioneers of reform and Opening-up’ is on the tradition of socialist China’s people heroes, considering those who selected and praised the people who contributed to reform and opening up for the 40 years. This paper examines the ‘100 pioneers of reform and Opening-up’ in the context of the tradition of the people hero, and reveals

characteristics of future reform discourse that is different from the early period of socialism and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socialist period, the 'model workers' were selected to enhance the values of socialist countries such as 'labor', 'self-devotion', 'loyalty to the party', in the reform and opening up era, the model workers were selected to 'contributing to national development'. And '100 pioneers of reform and Opening-up' are portrayed as people's heroes embodying the values of 'pioneering and exploring spirit', 'self-innovation' and 'quality leap'.

The 'pioneering and exploring spirit', 'self-innovation' and 'qualitative leap' that stand out in the '100 pioneers of reform and Opening-up' will constitute core values for the reform of China as a 'stage of high qualitative development' in the future.

Key words: 40th Anniversary of Reform and Opening-up, 100 pioneers of reform and Opening-up, People Heroes, model worker, National model worker, Self sacrifice, Pioneering and exploring, Self innovation

이 논문은 2019년 4월 23일에 접수되어 2019년 4월 3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